

인상 깊은 구절: ...그렇기에 '삶의 의미'에 대한 일리치의 깨달음은 “그건 네 생각이지” 일 가능성이 크다. (72p)

스스로의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일은 어렵고,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. 또한 확신 없이 불확실한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 역시도 정말 어렵다.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, 또 그렇기에 삶이 헛되지 않다거나 가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.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도출해 낸 결론은, 스스로의 생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타의적인 힘에 의해서 행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.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, 이것은 의미 있는 일들인지 객관적인 시선에서 점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으나, 삶의 궁극적인 가치나 목적은 스스로 정할 일이다.